

# 말 (言) 과 힘 (力)



고 태 영

분회 부회장, 동진회 회장  
진양농장 사장

## ‘요즘은 이렇게 산다우—’

달포전이던가 동네꼬마녀석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때는 별 시덤지도 않은 소릴 다 하는구나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며칠 후 그 말의 진원을 알게되었다. TV화면을 가득 채운 배추머리 사내가 눈을 부라리면서 중얼중얼하던 끝에 동네꼬마녀석과 똑같은 말을 내뱉고 있었던 것이다.

그후 나는 그 배추머리의 위력(?) 에 대해서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요일 저녁이면 동네 아이들은 놀던 것도 집어치우고 TV 앞에 입을 벌리고 앉는다. 오늘은 무엇을 먹여주려는가 잔뜩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예의 배추머리가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뜨는 순간 ‘지구에서 떠나거라~’ 한마디 던져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넌름 받아먹는다.

말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걸잡을 수 없는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양계업계에서 많은 말의 위력이 제대로 나타난 적이 없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주장이건 간에 먹혀들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하다못해 그 배추머리 사내녀석의 말만 하더라도, 그 결과의 선악을 따지기에 앞서 일단은 힘을 가진다고 할수 있다. 때로는 배추머리 그녀석에서 골밤을 몇개 던져주고 싶기도 하지만, 필자를 비롯한 모든 양계인들이 어느 면에서는 그만도 못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우리 양계업계가 힘있는 말을 가지지 못한 것은 말하는 쪽에서 힘이 부족하다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대개는 그러한 말을 들어주는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어떤 주장에 대해 그 가치를 부여하는 주체는 말을 하

는 사람보다는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결정이 될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수개월간의 추적 끝에 유명 여배우의 스캔들이 될만한 정보를 입수했다 하자. 이때 듣는 대상은 적어도 사춘기를 경험한 세대이어야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상대가 유치원아이라면 말하는 사람만 미칠 노릇일 것은 뻔하다. 팔십이 넘은 허리 꼬부라진 노파 앞에서 배추머리가 제아무리 핏줄을 당기고 침을 튀겨가면서 소리쳐봤자 손주놈 재롱쪼오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고, 배추머리는 재풀에 치치고 말 것이다.

우리 양계인들에게는 남의 말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으려면 많은 경험의 축적이 있어야 한다. GP센타가 필요하고 계열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양계산업의 저변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경험의 축적에는 갖가지 길이 있었으나, 우선 어렵지 않게 해낼수 있는 것이 잡지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 활용하는 방법이다.

한편으로 함구(臆口)가 힘이 될 수도 있다. 모르는게 약일 때도 있다. 신라때 한 신하가 임금의 귀가 당나귀귀라는 비밀을 알아버린후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해 몸이 삐쩍삐쩍 말라갔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아무도 없는 숲으로 가서 목청껏 외쳐댔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처럼 하지 못할 말은 병이 되기도 하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면 커다란 소요가 일기도 한다.

누군가 우리나라 외채가 너무 많다고 한마디 던지자 그 사실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길라도 한것처럼 저마다 이구동성으로 떠들어댔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80만원

씩의 빚을지고 있다는등 모르고 살던 사람들에게 걱정거리 하나를 안겨주었다.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겠으나, 너무 크게 문제시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다. 2, 3년전 악어가죽과 전자제품이 판을 치더니 요즘은 닭다리, 쇠꼬리를 붙들고 아우성이란다. 들리는 말로는 외제라면 쇠꼬리도 무슨 신주 모시듯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외제병이 전염병돌듯 하니 차라리 눈을 감는게 속편하다. ILT나 ND같은 백신을 놓거나 폐계치분하면 속이라도 시원할텐데 말이다.

현재 우리 양계업계는 수많은 난제를 앞에 두고 있다. 가야 할 고지는 멀고 시기적으로는 촉박하다. 그러니 강행군일 수밖에 없다. 발이 부르트고 피를 흘려서라도 일단은 가야 할 판이다. 그러나 강행군을 해서 낙오자가 더 많이 생길 경우라면 어느 지점에서인가 한숨돌릴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그 시기와 장소를 택하는 것은 지휘자의 판단력과 행군자의 의지와 체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일본은 담배수입 자유화를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갖가지 준비를 해왔고, 이를 위하여 일본 국민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제는 양담배에 대해 자신이 선 것이다. 지휘자의 안목과 행군자의 체력이 빛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우리 양계산업도 외세에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갈길을 제시했다. 문제는 그 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시행하는가 하는데 있다. ■